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4. 8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美 법원, “ISIS 비틀스, 외국인 인질 전기·물고문” 확인
 - 3.31 美 버지니아주 법원은 지난 '12~'15년간 시리아에서 미국인 등 서양인 27명 참수 혐의로 재판 중인 'ISIS 비틀스'*의 「엘세이크」가 “외국 인질들 대상 구타·전기·물고문 및 싸움을 강요했다”는 증언 확보
 - * 英 사투리를 쓰는 '영국계 4인조 ISIS'라고 하여 붙여진 별명으로, 美 측에서 英 정부에 “사형 처벌 안하겠다”고 약속 후 자국으로 송환하여 재판 中
- 美 뉴저지주, 작년 '증오범죄 발생건수' 역대 최다
 - 4.1 「플래킨」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'21년 한 해 1,871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해 '94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, 아시아계 대상 관련 수치는 129건으로 전년 69건 대비 87% 증가했다고 발표
 - * 한편, 性소수자 대상 증오범죄가 373건 발생해 전년 대비 171% 증가
- 美, 관타나모 수용소 '알제리 출신 수감자 1명' 본국 송환
 - 4.2 美 국방부는 지난 '16년 정기심사위원회(PRB)의 권고에 따라 '02년부터 쿠바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소에 구금돼 온 알제리 출신 수감자 「수피얀 바르후미」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발표
 - * 同人是 탈레반이나 알카에다에 연루되지 않았지만 극단주의 활동에 관여한 혐의

아·태평양

- 아프간, “中, '탈레반정부 외교관' 파견 승인” 발표
 - 4.4 「아미르 칸 무타키」 아프간 탈레반 정부 외교부 장관 대행은 “베이징의 아프간 대사관에 우리 외교관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승인했다”고 발표
 - * 중국이 탈레반과의 관계 강화에 힘쓰는 것은 광물자원개발 및 신장위구르족 분리주의 움직임 견제를 위한 것으로 분석

유럽

○ EU 의회, “모든 암호화폐 거래 실명화” 초안 의결

- 3.31 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테러자금조달·자금세탁·범죄악용 등 방지를 위해 ‘모든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’ 법안*을 가결하였으며, 同 법안은 다음주 EU 의회 본회의 및 장관 동의시 최종 확정 예정

* 기존 ‘1천 유로(약 134만원) 거래시 실명제’를 강화하여 완전한 투명화 추진

중동

○ 이스라엘 총리, 국민 ‘총기 휴대’ 필요성 강조

- 3.31 「나프탈리 베넷」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자국내 테러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기 소지면허를 가진 국민은 공공장소에서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

* 3.29 텔아비브 지역 총기난사 사건(사망 5) 발생 이후 4.1 총기소지 허가 신청자가 900명을 넘어서는 등 이스라엘 국민의 총기소지가 급증 추세

○ 후티 叛軍, 라마단 첫날(4.2) 이후 2달간 휴전

- 4.1 예멘 주재 UN특사는 예멘 내戰에서 정부군을 지원하는 사우디 동맹軍과 이란의 도움을 받는 후티 叛軍 사이에 2개월간의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으며, 양측 합의시 관련 조치는 연장될 수 있다고 발표

* '16년 이후 6년 만의 전국적 휴전 합의로, 叛軍은 同 조치를 준수하겠다고 발표

아프리카

○ UN 안보리, 새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(ATMIS) 파견 승인

- 3.31 UN 안보리는 임무가 만료(3.31)되는 평화유지군 ‘AMISOM’을 대체할 ‘ATMIS’ 파병을 만장일치로 승인, 새로운 평화유지군이 소말리아군과 합동으로 ISIS 대응 등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예정

* AMISOM은 '07년부터 15년간 아프리카 동북부지역에서 대테러 활동을 수행

프랑스, 상점가 일대 수단 난민 칼부림 테러

- '20.4.4, 오전 11시경 프랑스 남부 로만쉬제르市상점가에서 수단 출신 난민 「압달라 아흐메드 오스만*」 (33세, 男, Abdallah Ahmed Osman)이 담배가게와 정육점을 돌며 칼부림을 자행, 2명 사망 · 5명 부상
 - * '17년에 프랑스로 이주, 10년간 난민 거주허가 취득
- 범인은 공격 中 “알라후 아크바르(아랍어 : ‘神은 위대하다)’”를 외치다가 하면, 사건 후에는 도로변에서 무릎을 꿇고 태연히 아랍어로 예배
 - * 경찰은 사건 자행 후 노상 예배를 보던 범인을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현장 체포
- 이런 가운데,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범인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과의 연계성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
 - 그러나, 범인 숙소에서 非이슬람권에 대한 불만이 적힌 메모지만을 발견하였을 뿐, 구체적 극단주의 단체 연계 확인은 실패
 - * 실제로,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는 극단주의 단체나 여타 조직 未 등장
 - 다만, 동명이 평소 코로나 19 봉쇄령(생필품 구입 外 외출 제한)에 강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을 확보
- 결국, 프랑스 정부는 범인 정신감정 및 수사 결과를 종합, 同 사건은 ‘이미 심리적 문제를 지녀온 대상자가 스스로 과격 이슬람 사상에 경도되어 비이성적 폭력성을 분출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’라고 결론
 - * 사법 당국은 범인이 황설수설하고 쉽게 흥분하자 정신감정을 의뢰하였으며, 담당의는 동명이 극심한 소외감과 불안증 등의 심리적 문제를 지녔다고 진단

< 외로운 늑대(Lone Wolf) >

- (정의) 정부 또는 특정 조직에 대한 반감으로 극단주의 단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 등에 자발적으로 동조하는 배후세력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
- (유래) 본래 1996년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공화국 키즐랴르를 기습한 체첸반군을 일컫는 말이었으나, 이후 美 극우 인종주의자 엘릭스 커티스가 백인 우월주의자 선동 과정에서 同 용어를 사용하며 ‘자생적 테러범’의 의미로 변화
- (특징) △외부지원 없이 스스로 테러를 준비·실행 △공격 방식 및 계획 관련 정보 부족으로 사전 징후포착 곤란 △‘소프트타겟’ 대상 ‘로테크’ 테러 주로 자행